

송성문 침묵, 샌디에이고는 2-4 패배

등록 2026.06.01 08:07:36



[워싱턴=AP/뉴시스]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2루수 송성문(오른쪽)이 지난달 31일(현지 시간) 미국 워싱턴 D.C.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 7회 말 2루타로 진루한 안드레스 차파로를 지켜보고 있다. 송성문은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고, 샌디에이고는 2-4로 패했다. 2026.06.01.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